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0월 10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마이스산업과	담당자	• 마이스유치팀장 구미정 ☎440-1511 • 담당자 최요한 ☎440-151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시민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염원

- 8일, 송도서 친환경 자전거 축제 '2022 송도 슬로우 롤' 열려 -
- 일반시민 500여명 참가해 자전거 라이딩하며 APEC 회의 유치 기원 -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본격 시민 홍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하고 (주)위라이드(대표 백시영)가 주최하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기원 이벤트 「친환경 자전거 축제 2022 송도 슬로우롤」이 8일 오후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기원 이벤트의 일환으로 인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즐기는 비경쟁 무탄소 단체 야간 자전거 대행진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달빛축제공원에서 출발해 국제업무지구, 아트센터 인천, 트라이보울, 센트럴 파크 등을 지나 다시 달빛축제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15km)를 질주하며 송도의 아름다운 일몰과 야경을 만끽했다.

자전거 무료 정비, 전기 자전거 체험, APEC 포토존 등 운영과 ‘베스트 코스튬을 찾아라’, ‘APEC 유치기원 메시지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행사로 치러졌다.

특히, 지난달 유정복 시장의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에서 싱가포르의 APEC 사무국을 방문해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Datuk Dr Rebecca Fatima Sta Maria) 사무총장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천유치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들과 함께 유치 염원을 나눈 첫 행사라는데 의미가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일몰과 야경을 가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단체 자전거 야간 라이딩 행사를 개최해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이스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